



9 단계 : 신앙의 지평을 넓혀라

“인간의 권리와 생명”

창 1 : 24 - 31

2011. 6. 29 (수), 7. 2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금세기의 특징 :

폭력과 인권 침해 (Amnesty international annunal report)

1. 인권 유리의 현실

- 1)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약 6000만명이 사망.
(유대인 학살 600만명, 스탈린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1923년 이래 6,500만명의 러시아인 죽음_ 솔제니친의 보고)
- 2) 이디아민 : 100만의 우간다인의 4분의 3이 사망.
- 3) 크메르루즈(캄보디아의 공산 세력)가 지도자 폴토티(Pol Pot) 치하에서 1975-1979년사이에 민족 학살이 이루어짐.
300만명이 죽음.(나라 인구의 절반)
- 4) 에디오피아 : 100만명 이상이 사망, 300만명 이상이 실종.
(1983-1985)
- 5) 1989년 중국의 민주주의 운동.
- 6) 1990년대 : 다시 등장. 1994년 르완다에서 50만명의 투치족이 살해당함.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의 두 지도자 카라직과 랫코 므라딕이 세르비아 영토 안의 8000명의 무슬림을 개인적으로 처형함.

7) 해마다 5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매춘을 강요 받음.

아시아에서는 200만명의 아동이 정규 노동자로 일함.

기독교인들의 수난 : 이집트 수단,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2. 인권에 대한 관심 : 학대와 함께 관심도 성장함.

1)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2) 1776년 미국의 헌법.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 특히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은 자명하다”

3) 인권에 관한 결정적 사건 : 2차 대전 시 독일과 일본의 잔인함.

1941년 루즈벨트 : 네 가지 필수적인 자유 (언론과 표현, 예배, 빈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위에 설립된 세계를 소망함.

4) 1945년 유엔의 헌장 전문:

“우리 유엔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자와 여자 및 큰 나라 작은 나라의 평등한 권리를 재천명하기로 결심한다.”

1946년 유엔에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어 ‘보편적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준비함.

“인간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세계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토대다”

1950년 :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1961년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1968년 : 국제 인권의 해.

3. 기독교인이 가져야할 질문

- 1)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 2) 언제 그들은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는가?
- 3)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과 행동에 기여할 만한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4. 성경과 인권

- 1) 인권의 기원은 ‘창조’ :

인권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것.

(창 1 : 27-28)

“세속 인권 운동은 철학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를 지지하며, 억압이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 위안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2차 세계 대전 이래 전통적인 인권계는 열정적이고 도덕적인 직관으로 정의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 그 직관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절대적 윤리에 대한 유대 기독교적 헌신

에 뿌리를 두었다. 그러나 90년대의 인권 활동가들은 도덕적 상대주의, 다문화주의, 급진적인 다원주의라는 세속 철학의 자녀이다. 따라서 다음 세기의 새로운 무질서한 세상에서 움직이려 할 때, 국제적인 인권 운동은 도덕적 나침반 없이 길을 헤쳐나가는 것, 도덕적 혼란을 피하는 것, 혹은 당시의 정치적 유행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점차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Gary Haugen).

2) 하나님이 자기 형상 대로 사람을 지으심.

3) 남자와 여자로 창조함.

4)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심.

5. 인간의 존엄성은 세 관계로 이루어짐.

1)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이성적, 도덕적, 영적 특성들을 지님.

2) 서로에 대한 우리의 관계 :

하나님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 영원히 별개인 세 인격으로

한 분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고, 인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분의 목적.

3) 땅과 그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

일할 권리, 쉼 권리, 자원을 나눌 권리, 의식주의 권리,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그것을 보존할 권리,
 빈곤 기아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바울은 주인과 종이 동일한 구세주를 믿기에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엡 6:9) 구약의 예언자들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 왕들이 생명을 어렵게 할 때 저항함.

6. 인간의 책임

- 1) 인간은 권리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감당해야 함.
- 2)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
 이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보편적 선언임.(Christopher Wright)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보류하기도 해야 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새로운 사회의 필수적인 특징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고전 9장)

7. 인권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

- 1)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 2) 인간의 평등 :
 인간은 동일한 창조주에 의해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 받음
- 3) 인간의 책임 :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 함.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책임.

현대 사회와 생명 : 안락사, 낙태, 동물 복제, 생명 복제...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1. 주님의 치유 사역

세 번에 걸쳐 죽은 자를 살리심. (마 9 : 18, 눅 7 : 11, 요 11 : 38)

눅 9 : 2 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심.

2. 치유 사역을 강조하신 세 가지 이유들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자신 속에서 역사하심의 증거.

(사 57 : 18, 렘 30 : 17)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상징.

2) 동정심의 표현으로써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심.

(눅 7 : 13)

3)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음.

(사 65 : 17) 주님은 치유 사역으로 현재와 새롭게 될 세상 사이

에 놓인 길을 밝게 보여주심.

* 바울도 죽음이 마지막 멸망할 원수라고 말함. (고전 15:26)

그 때 까지는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을 것임.

3. 성경적 가르침

1) 병과 죽음은 부조화된 창조 세계의 증거.

이는 태초의 모습은 아니며 하나님의 의도도 아님.

2) 창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죄로 인해 생긴 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하심.

기독교인들은 항상 세상에서 건강에 대한 노력을 이끌어왔음.

3) 몸의 부활과 영생은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

4)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각 생명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짐.

5) 병이 고통을 가져다 줌. 병과 죽음은 우리가 싸울 악.

의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생명 공학 (Biotechnology)

2000년 6월 26일 :

콜린스와 벤터(Francis Collins and Craig Venter),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과 함께 인간의 제놈이 해독되었다고 발표함.

클린턴,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Today, we are learning the language in which God created life.”

제놈(Genome)의 해독은 바이오텍. Biotech 세기의 한 업적.

1.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신학적인 확신은 변하지 않음 :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죄 등...

2) 주님의 가르침은 삶의 모든 면에 통찰력을 주심.

3) 주님은 모든 문제에 적용될 근본 규범을 제공해주심.

즉, 정의와 사랑의 규범.

4) 병과 죽음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우리의 문제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실 것.



5)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함.

2. 새로운 과학과 그 적용들

DNA and the Genome :

1953년: James Watson and Francis Crick가 DNA (deoxyribonucleic acid) 구조를 기술함.

3. 유전 공학 Genetic engineering

DNA를 조작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포함.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들. 1994년 이래로 300억개 이상의 변형된 식물들이 생산됨.

동물도 실험 대상으로 좋은 성향의 동물을 복제를 통해 대량 생산함.

나아가 인간 DNA의 조작이 큰 이슈가 됨.

4. 복제 (Cloning)

1997년 Dr. Ian Wilmut에 의해 복제양 돌리 (Dolly) 가 탄생.

(에딘버러에 있는 Roslin Institute에서) 처음으로 성장한

포유동물을 복제함.

5. 1998년 줄기 세포 (Stem Cells)

과학자들은 특별한 종류의 세포 즉, 줄기 세포를 발견함. 이를 통해 인간 치료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암,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이는 태아세포로써(Embryonic stem cells) 근원적인 세포이기에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이며 어느 곳이든 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식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

6.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과학-기술-상업의 연합 :

첫 동물 복제는 인류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연구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 또한 어떤 막연한 영적인 힘도 아님.

2) 연구 뒤에 있는 동력은 biotech 산업 자체임.

이들의 목적은 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것.

이 산업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짐.(공적인 점검없이)

3) 소비자의 요구 :

생명 공학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할 것이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려고할 것임.

마지막은?

4) 도덕적 단편화

5) 세계관의 역동성 :

인간은 단지 경제적 동물이 아니며 세계관이 배후에 있음:

자연주의(naturalism), 무신론(atheism), 실용주의(utilitarianism),

과학적 낙원주의(scientific utopianism)등.

“세상은 인간의 것이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고 믿음.”

6) 도덕적 응답

문제는 연구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태아 줄기 세포의 사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킴.

복제, 조작, 이미 존재하는 태아의 파괴와 자발적으로 버려진 태아.

7) 복제 Cloning :

* 인간의 복제에 대한 반대:

Leon Kass by University of Chicago

a) 비윤리적 실험 : 실험 대상의 동의가 없음.

b) 인간의 정체와 개별성을 위협 : 이미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다시 만들기 때문.

c) 인간의 생식을 제조업으로 변환시킴 : 물건은 만들어지지만

생명은 태어나야 함.

- d) 아이들에 대한 독재와 부모의 남용 :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소망을 이루는 소유물이 됨.

7. 세상이 교회에 던지는 질문?

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8. 우리의 대답

- 1) 당신들은 인간의 고통을 완화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 면에서는 당신들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 일을 인간의
복지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행해야 한다.
이 한계는 수단에 대한 제약을 포함한다.

- 2) 인간은 조작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 생명들이 실험되거나 동의없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 3) 당신들의 결정은 인류의 동의없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